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분석 및 가공: 이순영(트렌드 전문가)

김세은(트렌드 리서처)



테마명:

Womanism

우먼이즘

오늘날 여성상이 변화된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실용성을 가치소비기준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여성화가 지배된다. 지속가능성, 자신감, 기능성과 모더니즘 추구, 동시에 스포츠와 캐주얼을 즐기는 코스메틱과 모바일 폰 시장에 주목되는 미래산업사회 동향을 살펴본다.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All Reserved. 2009



우먼이즘 (womanism)

‘여성은 미래 인간형이다’

Ref> 트렌드 포커스팅 콘텐츠 :
 Power Full 테마 소시오컬처전망 -2
 서브 테마 - 숄더업 (Shoulder up)

Power Full 테마 첫 번째 라이프 스토리로 등장, 이미지네이션 컨셉부분에 속해 있는 우먼이즘으로 우먼파워로 출발하는 시즌 스토리로 제안 한다. 페미닌 파워, 다이렉티브 우먼, 비즈니스 우먼 등으로 상징되는 미래형 인간, 우먼이즘(womanism)에 대해 포커스 해본다. 여성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시점에서 제안되는 ‘우먼이즘의 여성화’(feminization)란, 최근 몇 년 동안 여성들의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학자 빈센트 베드류(Vincente Verdu)는 사회의 여성화(feminization)가 오늘날 커다란 가치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임즈 매거진에 실린 그의 주장에 의하며, “직관력을 가진 지식인이 오늘날 <감성적인 보스>로 촉망 받는다” 라고 말한다.

공격적인 반작용과 개인화 및 차별화는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대중적인 상호연관성만을 야기시킨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 ‘여성화(feminization)란, 실용성과 실질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와 효율성, 경쟁력 이 세가지가 열린 관계성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세계여성지도자 포럼, ‘우먼스 포럼’(Woman’s forum)시기에 출간된 프랑스 리서치통계센터 CSA (French polling organization)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대부분이 부패와 타락, 뇌물에 좌우되는 성향이 적고 또한 상대방을 부패와 타락으로 몰락시키는 성향이 드물다고 한다. 과거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의하면 여성스러움의 페미닌과 남성스러움의 메스쿨린 이 두가지 성향의 절충이 오늘날 여성화 사회를 말하며 ‘여성은 미래 인간형이다’(Women is the future of man)이라는 가치(value)를 어필한다. 이들은 발란스를 중시, 셀프 컨트롤(self-control), 개성의 자신감, 모던과 기능성의 절충 등으로 출발 되며, 이로 기반 하여 현 동향에 여성상은 실용성과 실질성을 중시하는 “리얼 우먼”(real-women)으로 제안한다.

Feminization + Social-Value { Power
Directive
Business

'Wo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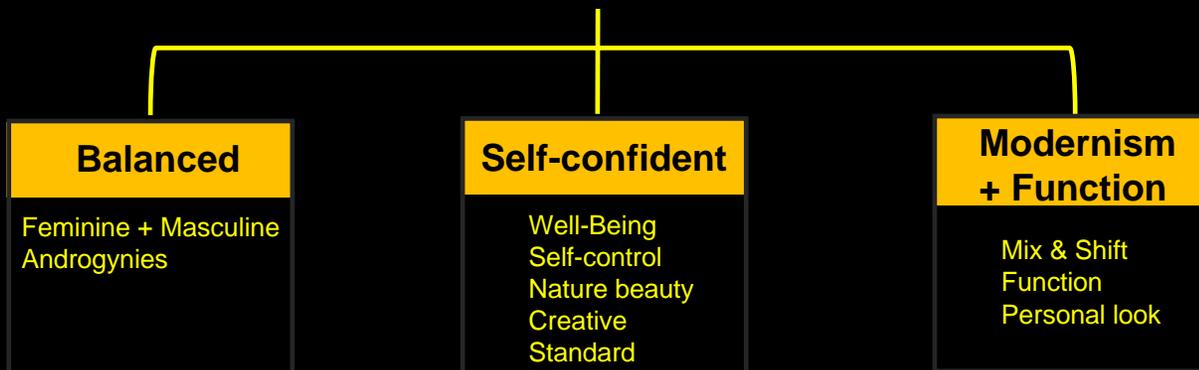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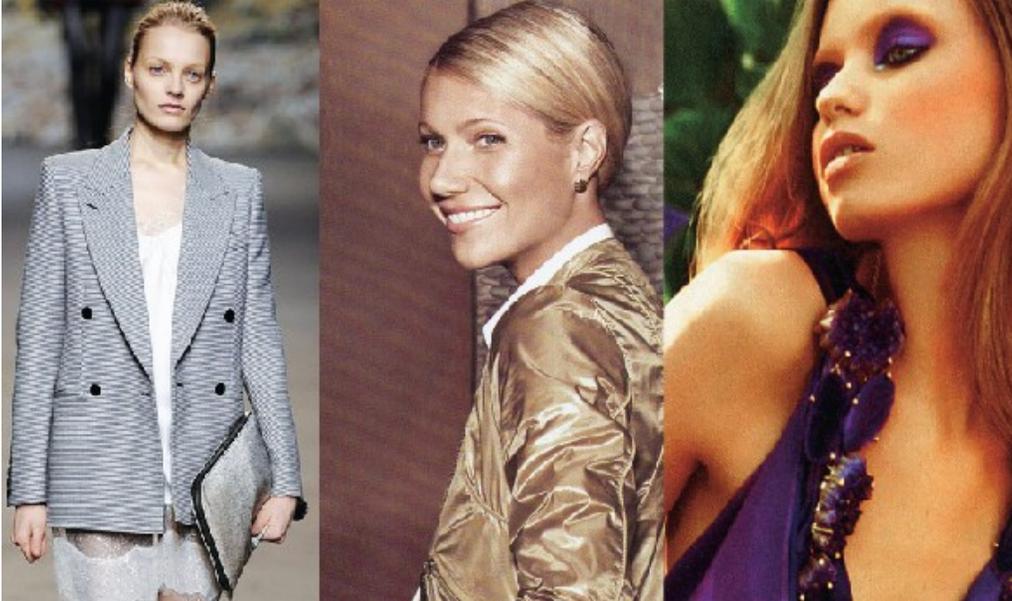
Today icon



오늘날 진정한 여성상은 현실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Real-Woman





1. 발란스 (Balan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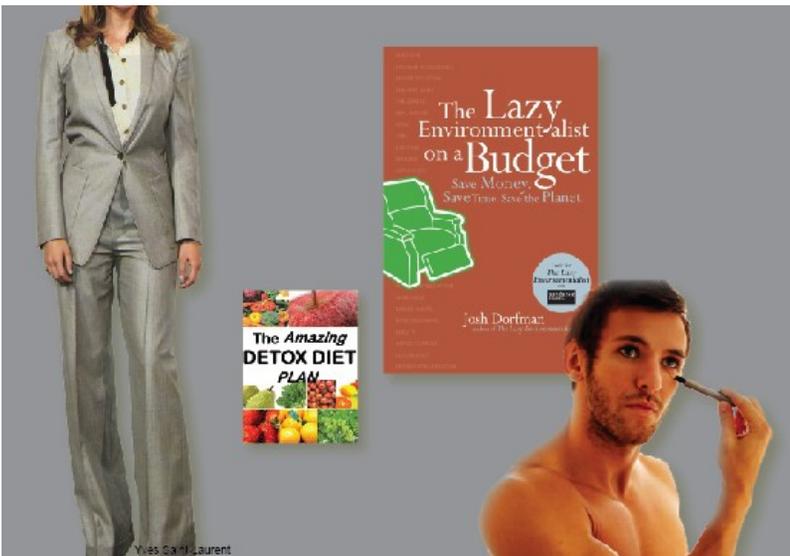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균형(바란스)의 중요성에 가치를 표방한다. 여성화 사회에 있어 평준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한 시점으로 포커스 된다.

2. 자신감 (Self-conf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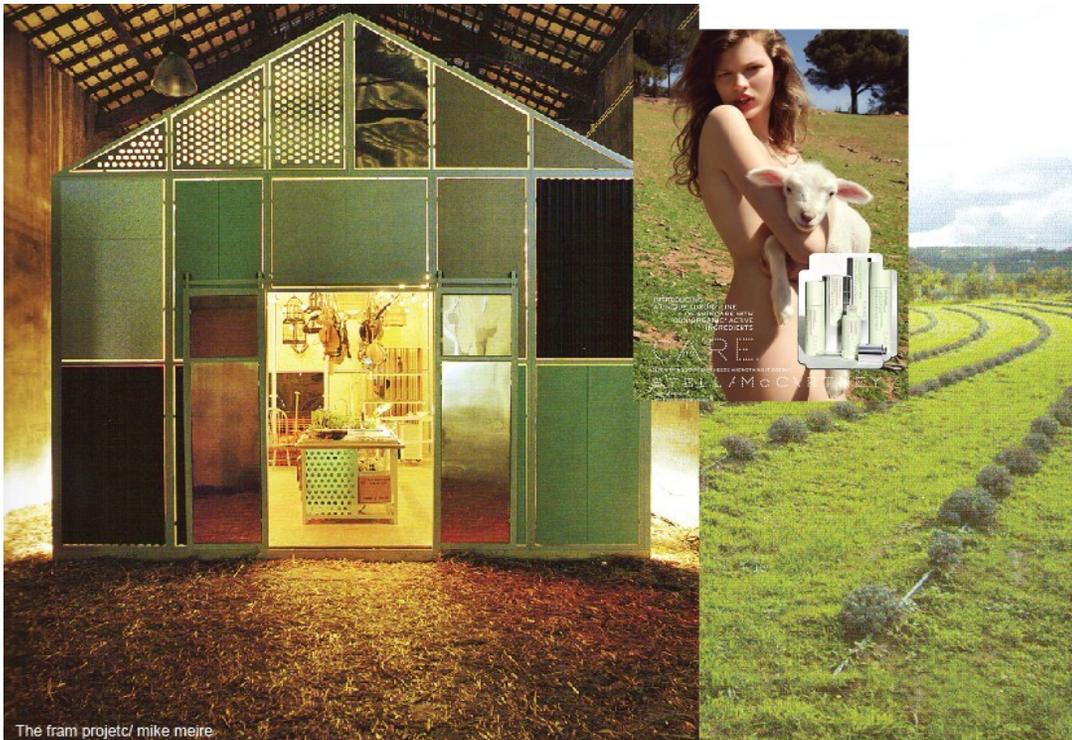
웰빙(Welling)의 새로운 글래머는 셀프 컨트롤 (self-control), 자신감 있는 스타일이다. Albert Elbaz. Design director, Lanvin (알버트 엘바즈, 디자인 디렉터, 랑방)

3. 기능성과 모더니즘을 포커스 하는 스타일 (Function + Modernism)

스타일을 중시하는 패션 기능성과 모던함이 중재는 시점의 스타일을 포커스 한다.



여성화 사회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수적이거나 화려한 장식적 차원이 완전히 제거된 검소하고 단아한 스타일로 완성되며, 패션의 본질적인 차원을 탐닉하며 소재의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한다. 전체적 스타일로는 페미닌과 메스쿨린의 접목으로 엔드로지니어스 룩 스타일의 경향으로 심플하고 정제된 타임리스 스타일이 연출되어 단조로움속 시크함으로 제안된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문직, 저명인사들이 여성에 포커스 되며, 남성에게 포커스가 되던 직종인 건축이나 요리 분야에 여성들이 포커스 되기 시작한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절충으로 인한 새로운 룩으로 최근 남성용 슈트가 여성복으로 제안 되며. 소재나 실루엣, 디테일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4. 지속가능성 (Sustainable)

자연스러움에서 출발하는 코드로 나만의 독창성과 개별성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미(美)에서 자유로움을 찾는 자아를 갖는다. 개인의 개성과 사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며, 매력적이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센스 있는 유머와 자신감을 강조한다. 표면화 되기 보다는 내재된 암시를 추구하며, 유니크하고 창조적인 글로벌 마인드의 여성상을 표명한다.

너무 과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빈약하지 않은 나만의 방식으로 재연출하는 환경과 패션의 창조성과 홀리스틱(holistic) 이성적 젠 어티튜드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내 몸과 영혼의 일치, 자아와 세계간의 하모니를 구현한다. 자연과 내 주위환경 즉, 글로벌 세계관과 함께 하는 나만의 바이올리듬의 조화와 일치시킨다. 지속가능성(sustainable) 흔히,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불리는 인간중심 프로젝트, 연령대와 남녀노소, 장애인, 마약중독자 등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이를 위한 퍼펙트 디자인, 지구를 상징적으로 볼 때 '에코'는 실현된다.

지구 안에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과 이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윤리적 도덕적 성찰이 흡수되는 에코-센스티브(eco-sensitive)와 에스닉(ethic) 어티튜드가 투명하고 진실한 제품을 만드는 기본 컨셉으로 중재된다. 전통방식으로 가공된 소재 또는 장인들의 크라프트맨십(Craftsmanship)과 새로운 디자인과의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제품들이 등장하며,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오가닉 코스메틱, 재생 가능한 패키지와 디자인 제품, 유기농 푸드, 요가, 전원생활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lf-control + Creative + standard)



5. Style+ Mix & Shift + Function

특별한 매력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시기적 타이밍과 트렌드 이전에 기능성과 편안함을 추구한다. 시즌과 스타일을 믹스하여 펄스널 록에 대한 재발견을 구상하며, 트렌드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 트렌드 코드를 정복한다. 패션을 추구하지만 패션세터는 아닌 스니커즈를 신어도 엘레강스한 스타일로 모든 연령대를 중재한다.

디자인과 기능의 접목을 통한 스타일을 중시하는 패션을 중시한다. 패션이란 편(fun)의 코드로 정의되며, 즐겁고 유희적이며, 동시에 창작적인 감성무드를 지닌다. 차핑에서 출발하는 'odds-and-ends' 스타일(여기서 odds-and-ends란,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것저것 섞어 연출하는 특별한 것이 부여되지 않은 스타일을 암시)은 그래픽, 패턴 즉 스트라이프가 최대한 어필되는 스포츠에 영감을 받는 캐주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칼라리스트와 같은 영감을 받으며, 바이-칼라 콘트라스트 중재가 리듬을 부여한다. 이들에게 특별한 취향과 선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색다른 것들의 조합을 이루는 앙상블이 키 포인트이다. 즉흥적으로 완성되는 다양한 액세서리의 연출과 펄스널을 어필하는 자유로운 스타일의 변화성에 있다. 코스메틱이나 모바일 중심의 소비재 중심으로 퍼스널 코드로 원츠(want)에 의한 기능과 칼라, 디자인이 매치되며, 스포티브한 코드가 접목된다.